

글 _ 전홍윤 (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팀장)

소리 없는 사랑이 더..아..름..답..다



동 경 131° 52' 22", 북위 37° 14' 18".
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90km 해상에 위치하며,
 36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. 행정구역상
 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~37
 번지, 면적은 18.6km²(약 5만평)으로 옛날에는 삼봉도(三峰島)·가지도
 (可支島)·우산도(于山島) 등으로도 불리던 곳. 한국과 일본은 물론
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섬, 바로 독도다.
 1905년 러일전쟁을 통하여 독도의 가치를 재인식한 일본은 같은 해 2
 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(竹島)로 개칭하고 일본 시마네
 현(島根縣)에 편입시켰으며, 이후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
 있다. 독도는 잇을 만하면 한 번씩 옆구리를 찔렀던 일본의 소유권 주
 장 때만 잠시 흔들렸을 뿐 여전히 평화로운 우리 국토의 막내였다.

소리 내지 않아 더 아름다운 나눔
 하지만 지난 3월 16일,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월 22일을 '다케시마
 의 날'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시킴으로써 전국이 들끓고 있다. 일본
 대사관 앞 항의시위와 일장기 소각에서 최근에는 단지(斷指)와 할복
 기도까지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 날로 격렬해지고 있으며, 최근에는
 정부까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'제2의 국권침탈'로 규정하고
 단호한 대처를 천명하는 등 그야말로 독도는 '폭풍전야'다. 범국가적
 인 독도 지키기 열풍 속에서 '반일감정과 애국심'을 자극하는 각종
 상품과 자극적인 광고들이 쏟아져 나오는 등 마케팅 세계는 또 하나
 의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.
 이런 뜨거운 열기 속에서 대구은행의 소리 없는 독도 사랑이 더욱 신
 선하게만 느껴진다. 지난 2001년 8월 15일 대구은행에서 설립한 사
 이버독도지점 고객이 이미 14만명을 넘었다고 한다. 독도지점은 인터
 넷으로만 운영되는 지점으로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높은 이
 자율과 수수료 면제 등으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. 하지만 800억원이

넘는 수신고가 어디 이자율과 수수료 면제 때문만일까. 그보다는 독
 도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과 사랑이 이처럼 높은 호응을 얻게 한 요인
 이라는 것이 대구은행의 설명이다.
 사이버독도지점은 3년 전부터 이미 이익금의 일부로 만든 '독도기
 금'을 통해 독도경비대를 지원해 왔으며, 독도 토착식물인 섬말나리
 를 되살려 복원한 '나리분지'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, 매
 년 청소년·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
 독도그림그리기와 글짓기대회 등을 열고 있다.

나눔 문화 일깨우는 '벤처어게인'이 되길
 최근 나눔 문화는 '자선'과 '사회공헌'을 넘어서 '변혁적 기부'로 급
 격히 나아가고 있다. 이제까지의 많은 기부들이 기부자를 외적인 요소
 로 두고 기관이 사명과 목표를 설정해 기부자를 참여시키는 '거래적
 기부'였다면, 변혁적 기부는 개인, 재단, 기업체의 비영리 기관에 대
 한 자발적인 기여이며 목표도 기관, 기부자 심지어는 지역사회에 대한
 중대한 변화와 변혁까지로 확대된다.
 이럴 경우 기부는 기관과 사회의 장래에 대한 변화와 발전 가능
 성에 대한 진정한 투자가 되는 것이다. 하지만 이 변혁은 큰소리를 내
 며 일시에 몰아치는 소나기나 홍수 같은 것이 아니라 대지를 적시는
 봄비처럼 소리 없이, 그러나 꾸준히 내리는 가랑비와 같은 것이다.
 최근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'벤처어게인' 바람이 불
 고 있다. 주변에서도 "아직도 (잘나가는 벤처기업 주식) 안 샀느냐?"
 는 말을 할 정도로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높
 아진 것은 개인적인 다행을 넘어서 국가적인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.
 겨우내 잠들어 있던 많은 나무들이 가지개를 켜는 봄이다. 나무들이
 자신을 키워준 대지에 풍요로운 열매를 선사하는 것처럼, 새롭게 불
 고 있는 벤처어게인의 바람이 한국의 나눔 문화를 새롭게 발전시키는
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.